



영어주춤... 문화체험 힘드네



저 모습 너무 불안합니다. 다리를 쪽 편데다 그나마 꼬고, 뒤로 넘어질 것 같습니다. 저렇게 엉거주춤해가지고 원, 박자나 맞출런지, 아마 도저히 못참아서 지러졌죠. 다리로 지려고 허리도 아플겁니다. 계속 지켜봤는데, 참에는 양반다리였습니니다. 용하게 참고 버티는 것 같더니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길 몇 차례, 결국 두 다리를 쪽 편더군요. 외국인들은 그 자세 안 나오죠.

최근 국립광주박물관이 전남지역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소강당을 채운 외국인 교사들은 모두 60여명. 코 끝에 땀방울이 맺히면서 북, 장고, 팽과리를 두들기는 외국인들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봅니다. 두툼한 손으로 팽과리를 부여잡은 모습이 얼마나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외국인 뿐일까요.

한국 전통 악기를 체험하고 배우는 것은 한국인들에게도 무척 어색한 일이 되버리지 않겠습니까. 언제 접해 봐야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 미소, 발레 학원 찾기는 쉬워도 사물놀이 가르쳐주는 학원은 없습니니다.

우리 것을 배우겠다는 한국 학생들도 소강당을 가득 채운 외국인 교사들처럼 많았으면 좋겠네요.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뉴스퀴즈 77·78회 김윤의씨 1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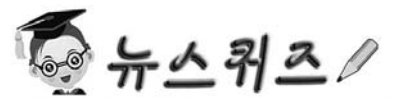
광주일보가 실시한 77·78회 뉴스 퀴즈 추첨 결과, 김윤의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김씨는 27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77·78회 뉴스 퀴즈에는 업서와 편지로 254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김윤의·광주시 북구 우산동
2등 ▲윤영미·광주시 광안구 월계동



79. '코리아 마린보이'로 불리는 이 선수가 최근 열린 '2007 일본국제수영대회' 자유형 4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 가능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2위로 끝낸 자유형 장거리의 '10년 황제'인 후주의 그랜트 해켓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박태환 ②조오런 ③김연아 ④한규철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도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I love MY student



양지숙

첫 눈에 보아도 금방 다른 증후군임을 알 수 있는 수현(가명)이는 특수학급 3학년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 아동이다.

지난해 가을 어느 날, 학교 일로 수현이네 학급에 들러 특수학급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 아이가 교실 구석에서 네모난 통 하나를 손에 들고 뚜껑을 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통은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점심으로 준비

해 온 김밥이었는데 그걸 먹겠다고 냉장고 안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꺼내 가져간 것이다.

선생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특수학급 담당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김밥 통을 들고 있는 수현이를 데리고 교실 밖으로 나왔다.

"그 김밥이 그렇게 먹고 싶니?" 수현이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여전히 김밥 통을 열려고 했다. "그 김밥 통 이리 주렴. 내가 열어서 줄게. 그런데 꼭 하나만 먹어야 한다."

고집스러운이 한 풀 꺾이자 김밥 하나를 꺼내어 입에 넣어주고 이것저것 물어 보았지만 말귀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말소리는 한 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수현이와 나의 첫 대면은 이렇게 이뤄졌다.

"저 정도 자기 생각이 있는 아이라면 글을 읽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 날부터 나는 수현이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 광명원에 나갔다.

처음엔 내가 학습지도 자원 봉사를 한다고 하니가 연구 보고서가 필요해서 그러는 줄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마땅찮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

학교에서 퇴근을 하고 거의 매일 광명원에 들러 수현이를 비롯한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을 가르쳤다.

한글 자음을 익히기 위해 지도한 '가위, 나, 라, 이타, 마차, 아기' 이런 낱말들은 구별하고 따라서 소리내었지만 '바가지, 다리미, 사람' 소리는 발음 자체를 어려워했다. 선생님을 '아메니'로

소리와 조 좀 어려운 발음은 도저히 소리내지 못하는 아이들, 그 예들은 말소리보다 손짓, 눈짓, 표정이 훨씬 더 편한 의사소통 도구였다. 3개월이 지났을까.

수현이가 자음의 모양을 정확하게 구별한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너무나 박찬 감격으로 수현이를 꼬옥 껴안았다.

통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수현이의 담임교사와 의논한 끝에 수현이는 2주일에 한번씩 금요일마다 우리 교실에서 우리 반 아이들과 생활하게 되면서 점점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학교 생활에도 적응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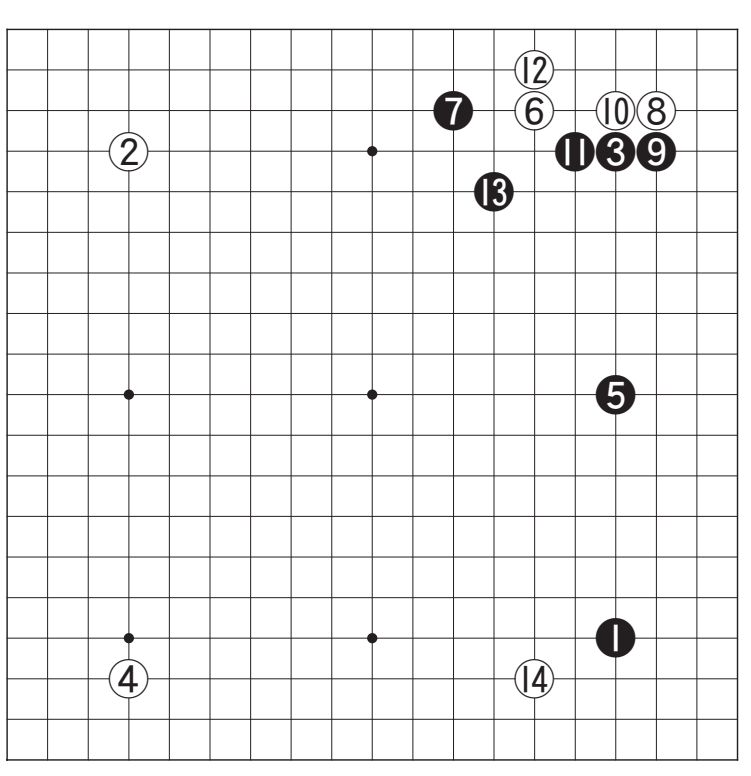
지금 수현이는 '가거고구기개'부터 '하하호호히히' 까지 소리내는 공부를 하고 있다. 수현이가 글을 읽는 그 날, 나는 수현이와 함께 바다에 떠 있는 배를 타러 갈 것이다. '바보보부부바베'를 바다에 떠 있는 배에서 넓고 넓은 바다를 향해 수현이와 함께 목청껏 외쳐볼 것이다.

(영양 삼호중앙초등학교 교사)

환하게 웃어라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8일(음 7월 16일 甲午)

子	36년생 좋은 일과 연결될 기회가 생긴다. 48년생 본인의 뜻을 이룰 수 있다. 60년생 인생은의 뜻을 이룰 시기이니 지금부터 행동하라. 72년생 흥분은 금물이니 생각하고 행하라. 84년생 직장에서 새로운 일로 인정받는다. 행운의 숫자: 07, 26
丑	37년생 제사에 신중하고 욕심을 버려라. 49년생 예상치 못했던 실물수가 있으니 주의하라. 61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니 전후좌우를 살펴 가라. 73년생 신체적 불만이 나올 수 있고 주변이 어지럽다. 85년생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라. 행운의 숫자: 06, 25
寅	38년생 다시한번 뒤를 돌아보라. 50년생 주변의 변화로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 62년생 직업과 돈 남편 자녀까지도 조심해야 한다. 74년생 무리한 변화는 잘못이 따르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15, 27
卯	39년생 재물과 건강에 사달림이 있을 수 있다. 51년생 불면증이나 감기에 휘둘린다. 63년생 건강을 위한 꾸준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라. 75년생 소신껏 행동하면 큰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19, 28
辰	40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 된다. 52년생 협조자가 나타나 조심성 있게 판단하라. 64년생 김밥도 흥이 더 많으니 매사에 신중하라. 76년생 재산은 증식되나 부부간의 이해가 부족되니 대화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12, 23
巳	41년생 식구들의 건강을 살펴봐라. 53년생 도화기가 재발하면 명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65년생 누명 구설 등으로 불순한 일이 괴롭힐 수도 있다. 77년생 기상천외한 황제수가 있고 노력에 비해 대가가 증가된다. 행운의 숫자: 04, 22
午	42년생 슬픔과 기쁨이 같이 나타난다. 54년생 어부지기가 있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66년생 아랫사람과 금전거래는 절대로 하지마라. 78년생 소탐대실 욕심을 버리는 사람에게 승리의 여신은 미소 짓는다. 행운의 숫자: 02, 29
未	43년생 약어도 수달에게 꼬리를 내어준다. 55년생 일일일득, 하 나를 잃으면 하늘을 얻는다. 67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지만 마무리하는 자신이 허다. 79년생 효도도 중요하나 자식교육이 더 중요 하리라. 행운의 숫자: 13, 30
申	44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다. 56년생 상황에 따라서 시비 도난 분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68년생 뜻하지 않은 돌발 사태에 지혜롭게 대처하라. 80년생 광속에 병이 따르니 피하는 게 좋다. 행운의 숫자: 11, 24
酉	45년생 자기자랑보다 동료를 칭찬하면 꿈은 내게로 온다. 57년생 아무리 부부사이라도 예의를 지키면 사랑은 두 배로 되리라. 69년생 제일 편한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81년생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하라. 행운의 숫자: 17, 18
戌	46년생 애사가 생길수도 있고 가족과 떨어져 살 수도 있다. 58년생 모두가 내 탓으로 생각하라. 70년생 배인 덕이 없다 생각 말고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생각하라. 82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할 때다. 행운의 숫자: 09, 21
亥	47년생 많은 지출이 발생하나 투자로 생각하라. 59년생 부모 형제의 도움이 있고 새 생활이 시작 된다. 71년생 작은 일도 꼭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하라. 83년생 애인과 다툼은 있으나 원인은 사소한 것. 행운의 숫자: 03, 16



제16회 광일배 개인전 준결승 1국 '필승의 각오' 1보(1~14)

이번 대회 단체전은 이번의 연속으로, 전년도에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며 압도적인 승차로 단체전과 개인전을 휩쓸었던 포스코가 전년도 우승편 버를 전원 출전시키고도 입상권에 들지도 못하는 등 이번의 연속이었다.

결국 영예의 우승컵은 주장인 박정규 5단이 맹활약한 KT전남본부A가 차지했고 준우승은 빛고을고사회, 3위는 (주)송림이 차지했다. 이중 (주)송림은 이제 2년째 출전한 신생팀으로 전년도에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일약 3위에 입상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종 4강이 겨우는 개인전에는 역시 입상팀에서 준결승 진출자가 나오

바둑소식

이창호 농심배 와일드카드 확정

이창호 9단이 제9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에 출전하는 한국대표팀의 와일드카드로 선정됐다.

이 9단이 와일드 카드를 얻어 9년 연속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된 반면,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이세돌 9단은 또 다시 고배를 마시며 농심신라면배와의 인연을 맺지 못했다.

이창호와 함께 국내 바둑계를 양분하고 있는 이세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농심신라면배에 출전하지 못했다. 이창호 9단의 합류로 박영훈 9단, 목진석 9단, 조한승 9단, 홍민표 5단 등 이번 농심신라면배에 출전할 5명의 한국대표선수가 모두 확정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우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원원약품 062-383-5883

<p>굿모닝 잉글리쉬 <979></p> <p>Which do you recommend? 어떤 것을 권하시겠습니까?</p> <p>A: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B: Well I haven't decided yet. May I have some coffee and- Yes, I want some ice-cream. Which ice-cream do you recommend? A: The tropical is good. It has some mint in it and the taste goes well with the steak. B: I'll take it.</p> <p>A: 후식으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B: 음, 글썽요.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요. 저는 커피하고 그리고- 그렇지! 아이스크림 주세요. 어떤 아이스크림이 좋을까요? A: 열대 아이스크림이 맛있는데요. 그 안에 바카와 약간 있는데, 스테이크와 어울리거든요. B: 그것으로 할게요.</p> <p>* What do you recommend / suggest~? : 당신은 무엇을 권하시겠습니까? * 저희들을 대신해 주문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Please choose something for us.</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p>오하오우 니혼고 <979></p> <p>今からワクワクしてますよ。 벌써부터 두근두근 거려요</p> <p>A: 高見(たかみ)さん車買(か)ったんだって。 B: ええ、免許(めんきょ)取(と)ったんで、車(くるま)がないと寂(がび)しいでしょう。 週末(しゅまつ)に新車(しんしゃ)が届(とど)くんですよ。 A: そう、じゃ土日(どにち)にさっそく、馴(なら)し運転(うんてん)をしなきゃね。 B: 今からワクワクしてますよ。楽(たの)しみだな。</p> <p>A: 타카미씨, 차 샀다면서? B: 네, 면허를 따서요, 차가 없으면 허전하잖아요. 주말에 새 차가 도착해요. A: 그래? 그럼 토, 일요일에 바로 연습운전 해야겠네. B: 벌써부터 두근두근 거려요. 기대가 되네요.</p> <p>届(とど)く: 도착하다 さっそく: 바로 しなきゃ: ~하지 않으면 ワクワク: 두근두근거리다</p> <p><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p>	<p>니하오 쑹구위 <169></p> <p>请在这里填上你的护照号码 이곳에 당신의 여권 번호를 채워주세요</p> <p>A: 老板, 买单。 Lǎobǎn, mǎidān. 사장님, 결제요. B: 支票啊。看一下你的护照。 zhīpiào a. kàn yíxià nǐ de hùzhào. 체크카드요. 한 미사자 내려 주세요. A: 给, 请帮我换成人民币。 Gěi, qǐng bāng wǒ huànchéng rénmínbì. 주세요, 동 원으로 바꿔주세요. B: 请在这里填上你的护照号码。 Qǐng zài zhèlǐ tián shàng nǐ de hùzhào hàomǎ. 장 미어 쪽에 여권 번호를 채워주세요. A: 사장님, 계산해주세요. B: 수표요. 당신의 여권을 한번 보여주세요. A: 여서요, 반원 원으로 바꿔주세요. B: 이곳에 여권 번호를 채워주세요.</p> <p>买单 [mǎidān] 계산하다, 현상하다 支票 [zhīpiào] 수표 换 [huàn] 바꾸다</p> <p><호남대학교 공자어카데미> ☎ 383-8867~8</p>	<p>한자 이야기 <596></p> <p>朝雲暮雨(조운모우) 아침 조, 구름 운, 저물 모, 비 우</p> <p>조운모우(朝雲暮雨)는 아침 구름과 저녁 비라는 뜻이다. 즉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된다는 말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있음을 비유하는 말이다.</p> <p>전국 시대, 초나라 회왕이 운몽에 있는 고당관(高唐館)에서 노닐다가 피곤하여 낮잠을 자더니 꿈속에 한 여인이 나타나 고운 목소리로 말했다. "소첩(小妾)은 무산의 신녀(神女)이었는데 전하께서 고당에 남시었다는 말씀을 듣고 베개와 자리(枕席: 잠자리)를 받들어 올리고자 왔습니다." 왕은 그 여인과 운우지정(雲雨之情: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었다. 이윽고 그 여인이 이별을 고했며 말하길, "소첩은 앞으로도 무산 남쪽의 한 봉우리에 살며,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양대(陽臺) 아래 머물러 있을 것이옵니다." 여인이 홀연히 사라지자 왕은 꿈에서 깨어났다. 이튿날 아침, 왕이 무산을 바라보니 과연 여인의 말대로 높은 봉우리에는 아침 햇살에 빛나는 아름다운 구름이 걸려 있었다. 왕은 그곳에 사당을 세우고 조운묘(朝雲廟)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高唐賦)</p> <p>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무산지운(巫山之雲)'·'무산지우(巫山之雨)'·'무산지몽(巫山之夢)' 또는 '운우지정(雲雨之情)' 등이다.</p> <p><한여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
---	---	---	---